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 pp.283~30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개화기 유길준의 종교적 인식과 교육적 실천

李 在 一

(선문대학교)

《요약》

교육은 그 시대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한다. 개화기의 교육은 개화기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한다. 개화기의 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교육사학계에서는 개화기에는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어서 조선의 전통과 서양의 근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서구 교육을 수용하기에 급급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를 문제시하면서 유길준의 교육론을 살펴보았다. 실상 개화기에는 전통과 근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전개할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사상을 체계적으로 전개했던 유길준은 유교적 전통과 서구적 근대를 조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지식인이었다. 그의 사유에는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도덕적 사고가 짙게 배어있다. 그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이념이 수용되고 유교와 교육이 분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도덕적 수양과 지식의 계발을 병행하는 교육을 내세워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을 절충하려 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적 인간상도 설정했고 교육을 통해 개화를 이루고자 스스로 교육실천운동에 투신하였다.

핵심 주제어: 개화기(1876-1910), 유학적 전통, 서구적 근대, 개화교육론, 유길준의 교육론, 도덕적 수양.

I. 서론

한국의 교육은 개화기부터 서구의 교육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개편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한국 교육이 지닌 문제점은 대부분 개화기에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발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금의 교육 개혁이 혼란이 아니라 발전으로 나타나려면 개화기부터 시작된 근대 교육문화의 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교육이 이 시대의 사회와 역사의 산물이듯이 어느 시대에도 당시대의 사회와 역사의 산물인 교육이 있다. 시대적 산물인 교육은 그 시대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한다. 개화기의 교육은 개화기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한다. 개화기의 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전통과 근대가 만났던 개화기 지식인들의 교육적 인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교육사학계의 일각에서는 개화기에는 지식인층이 두렵지 못했고 위급한 시대적 상황이어서 전통과 근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서구 교육을 수용하기에 급급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¹⁾

이러한 견해를 문제시하는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개화기가 유교에 기반을 두었던 조선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가 시작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종교 지형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변화를 살펴보았었다. 그 선행연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화기는 사회의 여러 부문이 분화하는 시기로서 종교와 교육도 분화되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 나아가게 된다. 개화기에 나타나는 종교와 교육의 분리과정은 한국 근대교육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주목받아야 할 측면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교육에 영향을 주어왔고, 오늘의 한국 교육의 정체성은 전통의 기반 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한국의 전통은 토착적 종교가 보전해왔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서양 근대의 종교 개념과 종교자유 의 이념이 수용되었고, 유교는 국가종교로서의 지위를 잃어 간 반면 기독교는 근대문명의 종교로 부상하면서 조선 사회는 점차 다종교적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개화기에는 국권수호와 민족보전을 위해 실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통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있어 전통적 유교교육과 서양의 근대교육이 형식상으로는 병행되었는데, 전통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양자의 임시방편적 절충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전

1) 윤건차(심성보 역), 『한국 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서울: 청사, 1987), 418쪽; 정순우, 「개화기 서구 근대교육의 수용과정과 그 성격」, 《정신문화연구》 1992, 15권 4호, 158-159쪽; 정순우,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과 그 사적 전개과정」, 『한국의 교육과 윤리』 6집(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17쪽.

통계승과 근대문명 수용의 양면 모두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²⁾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삼고 개화기에 교육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논의를 했던 대표적 인물인 유길준의 개화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는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하여 전통과 근대의 문제에 고뇌하고 당시로서는 종교와 교육에 관해 가장 깊이 논의한 개화 지식인이었으므로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856년에 태어난 유길준의 사상과 행동은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다. 그것은 개화파에의 참여, 일본 유학, 미국 유학, 일본에의 망명 등이다. 그는 개화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박규수를 만난 이후 1881년부터 1882년 사이에 일본 유학을 함으로써 한 차례 변화를 맞이한다. 1883년부터 1884년 사이에는 미국 시찰과 유학으로 또 한 차례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1896년부터 1907년 사이의 일본 망명생활로 마지막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를 출생부터 미국 유학 직전까지(1856. 9. - 1883. 7.), 미국 유학 이후 일본 망명 직전까지(1883. 7. - 1896. 2.), 일본 망명 이후 임종까지(1896. 2. - 1914. 9.)로 나누어 사상과 행동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한다. 특히 그의 종교적 인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적 사고와 실천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유길준의 종교 이해

1. 출생부터 미국유학 직전까지: 교육 장려와 윤리 유지의 종교

개화기에는 조선 전통사회의 유교적 유산이 남아있었다. 조선 전통사회에서 유교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제시하고 도덕적 이상을 밝혀주는 신념체계였다. 유교는 인간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자연계의 구조와 원리를 밝히고 이를 윤식(潤飾)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윤리로 삼았다.³⁾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윤리적 가치의 근원인 반면에 조선에서는 유교가 도덕적 실천의 기준이었다. 도덕이 종교를 지배하는 유교 전통의 조선사회 유학자들은 성인이나 군자 같은 이상적 인간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에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존재세계의 궁극적 근거를 논하는 형이상학적 관심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⁴⁾ 그

2) 이재일, 「개화기 종교적 변화의 교육적 함의」, 《종교교육학연구》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제 12권, 2001. 6, 305-328쪽.

3) 김충렬, 『중국철학산고』 (서울: 범학도서, 1979), 60-62쪽.

4) 도날드 베이커(김세윤 역), 『조선 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서울: 일조각, 1997), 41, 124쪽.

서 조선 성리학자들의 지식이란 자기 수양과 도덕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교적 전통이 지배적인 조선사회가 근대 사회로 변모되는 전환기가 개화기였다. 개화기는 조선의 전통과 서양의 근대가 만나는 시기였다. 실학의 선구적 활동에 영향을 받은 개화 지식인들은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여 사회를 재편하려고 하였다. 일부 개화 인사들은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왔다. 그러나 위정척사파 인사들은 성리학을 고집하고 서양문물을 배척하였다. 당시에는 개화파와 척사파를 불문하고 종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인식했다.

1856년에 태어나 유교적 토양에서 성장한 유길준은 박규수를 만난 후 시무학(時務學)에 전념하게 되었고, 1881년에는 독일하여 일년 반 정도 수학하였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유길준이 종교에 관해 언급한 것은 1883년에 저술한 「세계대세론」과 「신문창간사」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는 선을 권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종교인데 세상의 다양한 종교는 교육을 권면하고 윤리를 유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한편,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여 인민을 노예화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하였다.⁵⁾ 유길준은 종교가 국가의 이해(利害)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종교가 교화의 원천이고 도와 덕에 근거하는 덕치의 근원이라는 유교의 전통적 사유와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교의 부정적 측면에 유의한다. 즉,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는 인민을 노예화하고 국가와 가정을 망칠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 특히 외국 종교가 유입되어 조선 인민의 정신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였다. 당시에 유길준의 종교에 대한 언급에는 세계의 여러 종교가 대등하게 논의되고 있기도 한다. 이는 성리학을 바른 것으로 보고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을 샅된 것으로 보는 성리학의 화이론적 인식체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미국유학부터 일본망명까지: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지향

개항 이후의 상황은 점진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허용되는 추세로 그리고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이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서양에서 나타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이념이 기독교 선교사와 개화 지식인에 의해 조선에 유입되었다.⁶⁾

5) 유길준, 「세계대세론」, 『유길준전서』 III (서울: 일조각, 1996), 9-11쪽.

6) 이재일, 앞의 글, 305-328쪽.

유길준은 개화파에 속하면서도 김옥균이나 박영효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한 특성을 그의 종교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도중에 쓴 편지에서 그는 한 때 기독교가 국가에 유익한 것으로 보여 조선이 개신교를 받아들이도록 제안하고 싶었었다고 했다. 그런데 기독교의 주요 가르침과 도덕이 타종교에도 있는 것이며,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가르침이 서양 기독교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데 조선에서는 강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조국의 장래를 위한 준비로 성실한 생각을 가지는 것만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⁷⁾ 이로 볼 때, 그는 종교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냉엄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기독교 윤리의 실천에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고, 조선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급진 개화파가 기독교를 개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 것과는 달리, 유길준은 기독교를 타종교와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 유길준은 미국 유학 이후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는 종교란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스려 바르게 살도록 하는 대도이므로, 각자 국법을 존중하며 종교를 믿을 때에는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세상의 다양한 종교는 불행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⁸⁾ 종교가 양심계발을 위한 것이라는 이러한 견해는 도덕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적 종교관과도 상통하는 것이고 일찍이 그가 「세계대세론」에서 종교란 권선징악하는 것이라는 인식과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길준은 종교에 대해 좀더 성숙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는 「세계대세론」에서는 종교가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다고 주장하여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종교를 논했었는데, 『서유견문』에서는 종교를 신앙인 개인의 관점에서 논하여 종교란 개인의 내면세계와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서양의 인권과 자유개념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에 관해 논의한다. 그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는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⁹⁾이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다.¹⁰⁾ 그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을 개화한 정치의 요건으로 삼았다.¹¹⁾ 정부의 종교에 대한 개입문제에 대해서 그는 종교 지원론과 종교 불간

7) 유길준의 영문 편지;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서울: 일조각, 1994), 83-84, 192-193 참조; 이광린,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서울: 일조각, 1989), 227-228쪽 참조.

8) 유길준, 『유길준전서 I: 서유견문』 (서울: 일조각, 1996), 143-144쪽. 이하에서는 『서유견문』으로 표기함.

9) 위의 책, 138쪽.

10) 위의 책, 145쪽.

11) 위의 책, 173-174쪽.

섭론의 견해를 제시하고 나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그는 세금을 종교에 지원하는 문제는 국민의 교육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이 개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을 종교에 써서 그들의 심성을 이끌어야 하고, 교육된 국민의 경우에는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¹²⁾ 그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만한 상태에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금을 지원하여 국민의 종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시세와 처지에 따라 개화를 추진하는 그의 기본적 견해가 종교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유길준은 종교적 다양성이 허용되는 사회는 불행해 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교화적 수단이 되는 종교가 다양할 경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킬 것을 염려한 듯하다. 그는 종교만 주장되면 문명의 발달과 개화에 방해가 된다고도 하였는데,¹³⁾ 이것은 종교세계의 비합리적 요소와 비실용적 요소를 문제시한 것으로서, 종교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과 함께 하여야 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그는 학문은 이치를 규명하고 성품을 다하며 이용후생하기를 도모하는 것인데, 서구 사회에서는 학문이 기독교에 종속되어 있다가 종교개혁 이후 학문이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였다.¹⁴⁾ 이러한 진술도 종교의 독주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이었다. 일찍이 그는 「세계대세론」에서도 종교에 의한 정신 지배의 부작용을 경계했었다. 그는 종교의 비합리적 측면과 종교가 무지한 인간을 예속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종교가 문명의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이를 염려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길준의 종교에 대한 언급에는 성리학적인 사고방식과 서구 근대의 종교 이해가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천리를 받아 본질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보며 인간의 도리와 예를 중시하는 인간관과 괴력난신을 멀리하는 공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성리학은 합리적 사유방식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조선조 성리학은 무부무군의 불교, 무위자연과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도교, 귀신을 달래어 화를 막고 복을 구하는 무교를 이단으로 비판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성리학은 내세를 강조하고 신비적 사건을 언급하는 기독교를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체제로 규정하였었다. 한편 그의 종교적 언급에는 종교는 인민을 교화하여 선으로 이끌고 사상적 통일을 이루는데 불가결한 도구라는 인민교화적 개념, 종교와 과학은 서로 차원이

12) 위의 책, 239-241쪽.

13) 위의 책, 376-377쪽.

14) 위의 책, 303-304쪽.

다른 것이라는 이신론적 개념, 종교는 비과학적 세계관이므로 타파되어야 한다는 반종교적 개념 등¹⁵⁾의 서구의 근대성에 영향을 받은 종교적 이해도 섞여 있다.

3. 일본 망명 이후: 기독교적 종교관과 유교적 종교관의 공존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유길준은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실각하여 1896년 2월 일본에 망명하였다. 1906년 동경에 머물 때 그는 기독교에 귀의하였고, 그 때 「사경회취지서」를 작성한 듯하다.¹⁶⁾ 그는 여전히 세계의 주요 종교가 선권악멸하는 대도에서 출현했다고 하여 종교를 도덕 유지의 기반으로 여기고 있으나, 기독교는 여느 종교와 다르다고 본다. 즉, 신이 인간을 창조하여 영혼을 부여하였으므로 신과 인간은 상통할 수 있고 신은 인간을 사랑으로 기르며 선으로 인도하므로 인간이 신을 정성으로 공경하면 삶이 즐겁고 죽음이 편안하며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¹⁷⁾ 그는 기독교와 유교를 비교하여 기독교의 특성을 드러내었다. 그는 유교는 현실 세계의 도덕과 정치에 관한 가르침인 인사교로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신과 인간을 교통하게 하고 영혼을 교도하는 영원의 종교라고 보았다.¹⁸⁾ 다시 말하면, 천신에 대한 신앙에 의해 영혼의 교도와 죄로부터의 구제가 가능하므로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종교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상황을 살펴보고 조선조에는 도덕유지의 기반이 되는 종교가 없었던 결과 이제 국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⁹⁾ 결국 그는 종교란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신과 영혼과 생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러한 종교가 있어야 사회의 도덕이 유지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유길준은 공자를 이 세상에서 세세토록 변하지 않을 가르침을 준 성인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가르침이 신과 영혼과 생사의 문제와 연관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기독교를 우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러한 견해는,

15) 장성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39-58쪽.

16) 유만겸, 「선친약사」, 『유길준전서』 V, 365쪽; 「구당거사약사」, 『유길준전서』 V, 370쪽; 이광린, 『유길준』 (서울: 동아일보사, 1992), 20-22쪽.

17) 유길준, 「사경회취지서」, 앞의 책 II, 395쪽.

18) 위의 글, 396-399쪽.

19) 위의 글, 398-399쪽.

20) 종교의 본질적 요소를 신과 영혼과 계시로 보거나 종교와 문명을 연관시키는 이러한 진술은 개화기 개신교 측에서의 종교 이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당시에 개신교계는 계시성과 문명성을 이상적 종교의 두 기준으로 설정하고, 개신교가 이러한 기준을 갖춘 이상적 종교라고 주장하였다. 이진구, 종교자유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이해에 관한 연구 -일제시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그가 일본으로 망명하기 이전까지 지니고 있었던, 종교의 본질을 교화의 근본으로 여기던 관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유길준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국민은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영혼을 계발하여 수양할 수 있고, 사람 되는 권리와 가치를 인식하며,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혼은 독립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에 기반을 둔 사회는 세세토록 굳건한 기초 위에 서게 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기독교를 신봉하지 아니하면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국민은 하루살이처럼 살 수 밖에 없고, 부강하고 영화롭던 국가와 문명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본다.²¹⁾ 이는 유길준이 「사경회취지서」를 작성할 때에 기독교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기독교와 서구 문명이 상관관계에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는 유교는 정치와 인간관계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기독교는 인류를 죄악에서 구제하므로 서로 목적이 다른데 두 종교의 신자들이 서로 질시하고 배격함을 염려하였다.²²⁾ 유길준은 기독교의 유일신론적 관점에서 종교를 분별하면서도 유교의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기독교와 유교의 공존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를 조화시키면서 이해하려 한다. 이는 유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지식인이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니게 되는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유교보다 기독교를 더 내세우고 있음은 분명하다.

유길준은 일본에서의 망명을 청산하고 귀국한 후 1909년 초에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가늠한 「시대사상」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중국의 역사를 정치와 도덕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주나라 이전의 도덕정치시대, 진나라 이후 지금까지의 법률정치시대, 지금 이후의 기술정치시대로 구분하였다.²³⁾ 그는 인사에 해당하는 정치와 도덕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출현하는 사상이나 종교에 부응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와 도덕을 사상이나 종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또한 그는 도덕이란 사회의 윤리로써 범위에 경계가 없고, 법령이란 정치의 도구로서 책략에 한계가 있다고 하여 도덕의 보편성과 법령의 한정성을 말한다. 나아가 그는 국가는 법률로 정치를 하되 도덕에 개입하지 말고, 도덕은 사회에 보편적인 것으로 개인의 교육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²⁴⁾ 이는 고대의 도덕정치

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109-112쪽.

21) 위의 글, 400-403쪽.

22) 위의 글, 399쪽.

23) 유길준, 「시대사상」, 위의 책 II, 284-285쪽.

24) 위의 글, 284-285쪽.

란 도덕적 교화가 통치의 중심에 있던 시대를 의미하고, 법률정치시대란 법률로 통치하되 그 법률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공자에 의해 가르쳐진 윤리도덕과 종교사상이 유기적 관련을 맺고 교화를 담당하던 시대를 의미하며, 이제 도래하는 기술정치시대란 육신을 지배하는 기술이 우위에 있는 통치 시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법률로 정치를 하되 도덕은 교육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는 시대가 변화하여 도덕 우위의 정치를 할 수 없고, 도덕의 근원이 되는 종교가 자유롭고 다양하게 허용되는 상황에서 도덕은 국가가 다루기보다는 교육이 담당해야 한다고 본 듯하다. 즉, 인간에게 불행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다종교 사회²⁵⁾에서는 교육과 도덕이 종교와 거리를 두게 됨을 염두에 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사상과 자유를 허용하게 되는 다종교 시대로의 변화를 세계사적 조류로 이해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도덕은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조선의 현실은 도덕의 정치는 이미 무너졌고 법령의 정치는 남에게 뒤졌고 기술의 정치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적다고 하면서, 도덕으로 출처의 근본을 삼고, 법령의 권한으로 장치(張治)의 도구를 삼으며, 기술의 재예로 행치의 사업을 삼으면 문화가 발전하고 부가 증대될 것이라고 하였다.²⁶⁾ 즉, 시대가 변화된 오늘에도 즉, 기술정치의 시대에도 도덕과 법령의 기반 위에 기술의 정치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III. 유길준의 교육 이해

1. 출생부터 미국유학 직전까지: 지식의 보급과 경쟁심 제고

개화 지식인으로 전향한 유길준은 과거를 위한 학문은 실생활에 무용한 것인데,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학문의 목적을 모를뿐더러 오히려 과문(科文)이 인재를 해치며 국가를 병들게 하고 인민을 학대한다고 과거제도를 비판하였다.²⁷⁾ 옛 문장을 암기하고 인용하는 시부(詩賦) 위주의 과거를 위한 학문은 실용성이 없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유길준은 과거시험에서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법의 문제도 지적하여, 수많은 사람의 평생 노력을 시험관이 단시일에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⁸⁾ 그리고 그는 자연을 노래하는 진부한 방식으로는 응시자의 재능과

25) 위의 글, 143쪽.

26) 위의 글, 285쪽.

27) 유길준(허동현 편역), 『유길준논소선』(서울: 일조각, 1987), 4쪽.

학식을 알 수 없으므로 과거를 폐지하고 실제적 교육에 힘써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 중에서 가려서 등용할 것을 주장한다.²⁹⁾ 실용적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과 연계된 관료선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은 일찍이 실학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과거제도의 시험내용에 대해서는 이익과 박제가가 문제점을 제기하였었다. 또한, 실학자들은 과거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방안으로 공거제(貢擧制)나 추천제를 제안하였었다.³⁰⁾ 실학자들은 과거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인재양성과 인재선발이 연결되는 학교교육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로 볼 때, 과거제도에서 내용과 방법의 폐단을 지적하는 유길준의 견해에는 실학적 전통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거제도의 부정,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교육과 연계된 관료선발 등의 견해는 그의 미국 유학 이후에 본격적으로 체계화되는 교육 이해와 갑오개혁에서 과거제도의 폐지 그리고 학교의 제도화로 결실을 보게 된다.

유길준은 과거의 폐단을 주장했을 뿐 유교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유교의 이념이 시행되지 않는 원인을 과거제도에서 찾고 있다. 그는 과거 때문에 성인의 도가 행해지지 않고 과거의 폐단이 조선의 풍속을 해칠 것이며 치국은 성인의 도로 하는 것이지 과거의 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³¹⁾ 여기서 성인이란 물론 격물진성의 학문을 집대성한 공자를 지칭하므로 성인의 도란 유교를 뜻한다. 그는 문제가 많은 과거제도가 유교의 실천을 막고 있고 이로 인해 세상의 교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음을 염려한다.

그가 일본에 머물 당시 일본에서는 여러 종류의 신문이 간행되어 국민의 의식을 계도해 가고 있었다. 그는 부강해지는 일본의 저력이 신문에서 나온다고 보고 나라를 개화와 문명으로 이끄는 것은 신문인데, 신문은 기선이나 전신보다 강하고 빠르며 넓어 국민으로 하여금 활발한 기상과 분발심과 자국 유지의 힘을 지니게 한다고 하였다.³²⁾ 그는 신문으로 지식을 보급하여 조선 인민을 각성시키고 교통으로 서로 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며 경쟁심을 제고하여 발전의 기틀로 삼으려 했다. 이와 같은 신문에 대한 관심에서 일본 유학을 마친 직후에는 신문 창간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내부대신으로 있던 1896년 초에는 국고보조금을 신문 간행비

28) 위의 책, 3쪽.

29) 위의 책, 8쪽.

30) 우용제, 『조선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9), 134-138, 141-143, 146-151, 160-161쪽.

31) 허동현 편역, 앞의 책, 4쪽.

32) 유길준, 「신문의 기력을 논함」, 《시사신보》 1882년 4월 2일자; 이광린, 『유길준』, 20-22쪽에서 재인용.

로 서재필에게 지불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미국 유학 이전의 유길준은 교육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다만 1883년에 쓴 「언사소」에 교육에 대한 그의 견해가 보인다. 그는 교육이 융성해야 인민의 지식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하여 국민의 지식과 국가의 독립이 직결되어 있음을 말한다.³³⁾ 이로 볼 때, 그는 미국 유학 이전에, 당시의 긴급한 과제인 국권의 수호와 독립의 유지를 위해서는 인민에게 지식과 기력이 필요하고 이는 교육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을 잘 하려면 국가시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교육을 국가가 관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길준은 각국의 개화 상태를 야만, 미개, 반개, 개화의 4 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는 반개의 상태란 농공상의 생업이 있고, 기술과 학문이 있으며, 타국과 무역을 하고, 예의를 중히 여기나, 옛 법을 고집하고 개화 진보를 거부하며, 자국이 세계 제일이고 타국은 이적이라 여기고, 신분계급과 남녀 차별이 있고, 정치는 군주정부에서 담당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였다.³⁴⁾ 조선이 어떠한 등급에 있는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을 반개의 상태로 상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조선이 구태를 벗고 학술을 중히 여기며 인륜이 실천되는 개화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유길준은 조선이 서양을 본받아야 개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유학부터 일본망명까지: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의 절충

개화기의 교육은 전통교육에 근대교육의 내용과 기능이 보충된 것이었다. 전통교육과 비교하여 볼 때, 1880년대 신식학교는 교양교육보다 전문교육에 치중하였다. 교육내용이나 교과목 선정에서는 인격수양의 내재적 가치보다 사회적 유용성을 지향하는 외재적 가치가 중시되었고, 이후 사회적 유용성은 근대교육과정 구성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³⁵⁾

개화기에 서양의 교육을 소개하고 조선에서의 신교육 실시를 주장한 서적이 바로 『서유견문』이었다. 유길준에 따르면 개화란 인간의 온갖 사물이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³⁶⁾ 그는, 덮어놓고 시행하기만을 주장하여 실용에 미치

33) 허동현 편역, 앞의 책, 8쪽.

34) 유길준, 앞의 책 III, 27-34쪽.

35) 김기석·유방란,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113-115쪽.

36) 『서유견문』, 395쪽.

지 못 하는 혁명개화가 아니라,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여 그 나라의 처지와 형편에 합당하게 추진하는 실상개화를 주장하였다.³⁷⁾ 이러한 그의 견해에서 올바른 개화란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인민의 교육은 국가의 큰 근본³⁸⁾이라고 하였다. 그가 교육을 개화의 첩경으로 보았듯이 지식인들도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개화를 하려면 이치와 근본을 연구해야 했으므로 교육에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길준은 개화에 대한 이해방식을 그대로 학업에도 적용하여 혁명학업과 실상학업을 말하였다. 그는 실상학업은 사물의 이치를 밝혀 실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⁹⁾ 또한 그는 교육을 학문하는 교육과 일용하는 교육으로도 나눈다. 학문교육은 실용을 위한 사리의 연구에 관계되는 교육을 말하고, 일용교육은 생업 활동에 필요한 견문과 지식의 교육을 말한다.⁴⁰⁾ 이것은 지식의 연구와 연구된 지식의 보급을 의미한다. 그가 제시하는 일용교육과 학문교육은 모두 결국에는 생활에 유용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유길준에 의하면, 조선에 필요한 교육은 실용학문의 교육이다. 그는 실용을 주로 하는 학문이 인생의 대도라고 하였다.⁴¹⁾ 이처럼 그의 교육에 대한 이해는 다분히 실효 있는 공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실용학문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개화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개화한 사람이란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사람 곧, 덕과 지를 겸비한 사람이다.⁴²⁾ 그는 이러한 사람을 선비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선비는 덕성을 함양한 가운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이용후생에 기여하는 지도자이다. 선비는 정신노동을 통하여 이치를 따질 수 있으므로 생업활동을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대부상은 실학자들이 주장한 사대부상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인간상 형성에는 도덕주의적 사유방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길준은 교육의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경쟁을 해도 예의를 지키므로 폐단이 나타나지 않고, 국정 참여의 지식을 갖춰 군주와 백성이 함께 통치할 수 있으며, 각자의 권리를 유지하고 국가의 권리도 보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야만인이라도 배워 도리를 닦으면 개화인이 된다고 하였다.⁴⁴⁾ 즉, 교육으로

37) 위의 책, 400-401쪽.

38) 위의 책, 191쪽.

39) 위의 책, 367쪽.

40) 위의 책, 229-234쪽.

41) 위의 책, 257쪽.

42) 위의 책, 397-398쪽.

43) 위의 책, 443-444쪽.

지식이 높아야 각자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유지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여,⁴⁵⁾ 개화의 열쇠가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길준은 근대교육과 전통교육을 절충하고자 하였다. 유길준에 의하면 교육은 단순히 지력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지력과 덕성을 종합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육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 지식을 풍족하게 갖추더라도 그 지식에 근거하여 덕의를 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교육제도를 갖춰 덕행과 도의를 배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⁴⁶⁾ 그는 인민이 교육을 받아 지식과 덕행을 갖추는 것이 근대교육과 전통교육의 목적을 모두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 듯하다.

근대교육과 전통교육의 절충 또는 지식교육과 도덕교육의 조화에 대한 노력은 유길준이 제시한 교육의 3대 강령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는 『서경』에 나오는 정덕이용후생의 개념을 교육적으로 해석하여 도덕교육으로서의 정덕, 재예교육으로서의 이용, 공업교육으로서의 후생이라는 교육의 3대 강령을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덕이란 사람을 교화하여 윤리를 세우는 것이고, 재예란 사람의 지혜를 북돋우어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게 하는 것이며, 공업은 물건을 제조하고 운용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⁴⁷⁾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재예란 과학적 지식을 뜻하고 공업이란 기술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유길준이 도덕교육의 기반 위에 지식교육과 기술교육을 구축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인륜과 도리의 교육에 기반을 두되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유학적 전통과 서양의 지식과 기술을 조화하려 했음도 알 수 있다. 나아가 유길준은 새로운 사회란 도덕에 기반을 둔 과학 지식과 기술이 발달된 사회이고, 이러한 사회를 이루고자 도덕에 기반을 둔 과학 지식과 기술이 발달된 사회이고, 이러한 사회를 이루고자 도덕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의 교육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그는 서양의 학술계는 사물의 이치를 따져서 지식에 이르게 하고, 성품을 다하여 궁리함으로써 세상의 편리와 이익을 꾀하며, 사람의 덕을 올바르게 함을 그 큰 목표로 삼는다고 하여,⁴⁸⁾ 서양의 학문도 도덕에 기반을 둔 지식과 기술의 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음을 보여준다.

유길준은 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경쟁도 이해하였다. 일본 유학 중

44) 위의 책, 159, 172, 128, 156쪽.

45) 위의 책, 120쪽.

46) 위의 책, 120쪽.

47) 위의 책, 127쪽.

48) 위의 책, 303, 352쪽.

에 진화론에 접한 그는 세상만사가 경쟁으로 진보한다고 하였었다.⁴⁹⁾ 미국 유학 후에는 그는 이익을 취하려 애쓰는 사회적 경쟁은 인간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개인이 사사로운 욕심을 자행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교육 받은 사람은 시비를 가리며 예의를 지키므로 경쟁에서도 도리를 지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⁰⁾ 이처럼 유길준은 교육으로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 사회적 경쟁과 인류역사의 발전을 낙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적자생존, 우승열패, 생존경쟁 등과 같이 비정한 경쟁보다는 서로 교제하면서 분발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표현되어 진화론적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⁵¹⁾ 그렇지만 그의 일본 유학 시에는 지식인 사이에 사회진화론이 유포되어 있었고, 후에 저술한 『서유견문』에 세계의 주요 학자로 진화론자가 열거되는 점으로 고려하건대, 그의 경쟁개념에는 진화론의 영향이 미쳐있다고 판단된다.⁵²⁾ 다만, 도덕과 도리를 중시하는 유학적 전통에서 진화론을 해석했기 때문에 양육강식의 경쟁보다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경쟁을 주목하고 이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경쟁은 방법을 잘 쓰면 인간 세상에 복을 가져오지만 잘 못쓰면 화를 빚게 된다고 하여⁵³⁾ 경쟁의 명암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유길준은 일본 유학을 마친 후에는 교육보다 경쟁을 더 중시하였으나, 미국 유학 이후에는 경쟁보다 교육을 더 강조하고 사회적 경쟁도 교육으로 형성된 도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일본 망명에서 귀국한 이후에는 우승열패 강승약패 등의 진화론적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을 교육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⁵⁴⁾ 그는 미국 유학 이후에는 일관되게 경쟁이 사사로운 욕심의 추구로 치달을 것을 염려하여 교육을 받으면 경쟁에서 예의를 지키게 됨으로, 경쟁에 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근대문화는 주체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여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의 충족과 관련된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 반면에 조선의 전통적 유교문화는 가족을 중심한 집단문화로서 효와 충을 강조하며 개인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서구 근대문화는

49) 유길준, 「경쟁론」, 앞의 책 IV, 48, 56쪽.

50) 『서유견문』, 150쪽.

51) 전복희, 『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1996), 112쪽; 정용화,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173쪽.

52) 정용재, 『찰스 다윈 -인간 다윈과 다윈니즘-』 (민음사, 1988), 188-189쪽.

53) 『서유견문』, 154쪽.

54) 유길준, 「노동야학독본」, 앞의 책 II, 343, 349-350쪽 참조.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조선 전통문화는 집단주의에 기초한다고 보았다.⁵⁵⁾ 유길준은 양자의 차이를 익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 유학 직후인 1880년대 초반부터 조선전통문화가 억압해온 개인의 욕구를 발전의 동력으로 인정했었다. 개인주의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 속에 받아들이려는 그는 주체의 욕구를 인정하되, 무제한적 경쟁이 가져올 폐해를 방지하고자 경쟁에는 경쟁의 도리가 있어야한다⁵⁶⁾고 보았던 것이다.

3. 일본망명 이후: 도덕수양과 지식계발의 교육

1890년대 후반에는 갑오교육개혁으로 근대적 국가교육체제를 갖추어 나아가게 되었으나, 신구 가치관의 상충은 심화되었고 신교육에서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1897년 8월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조선은 신구절충 또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을 정책으로 표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갑오개혁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덕육과 지육의 병립이었다. 조선 정부가 실용적 목적에서 신교육의 도입과 실시를 추진하면서 유교교육을 병행했던 것은 위정척사파의 전통고수의 입장과 개화파의 서구문물 도입의 입장을 고려한 신구절충 또는 구본신참의 교육정책이었다.

1907년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유길준은 기울어 가는 국가의 운세를 만회하기 위해 여생을 교육실천 활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관직도 사양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교육을 지식의 계발과 도덕의 수양 또는 학술의 수여와 품성의 도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교육으로 사람의 지능을 조장하고 덕의를 발휘하여 사람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알게 할 수 있으니, 교육은 사람이 사람 되는 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지식을 계발하고 도덕을 수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운을 만회하고 국세를 진흥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⁷⁾ 그의 이러한 교육관은 『서유견문』에 나타나는 교육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지식 교육과 도덕 교육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당시 개화 지식인의 교육적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1890년대 후반에 개화운동을 주도하던 독립협회는 재래학문과 교육을 비판하고 서구 근대의 학문과 교육을 수용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5년경부터의 애국계몽운동은 유학적 지식인과 기독교적 지식인이 양대

55) 최봉영, 「유교문화와 한국사회의 근대화」,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53집(1998년), 71-72쪽.

56) 유길준, 「노동야학독본」, 앞의 책 II, 350쪽.

57) 유길준, 「홍사단취지서」, 위의 책 II, 363쪽.

축을 이루어 대체로 유교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유교를 개혁하여 또는 기독교를 수용하여 국가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도덕과 윤리를 고양하며 개화로 나아가려고 했다.⁵⁸⁾ 그렇지만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이념이 수용되고 유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유길준에게는 종교를 통한 전 국민의 교화는 곤란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인의 도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지식계발과 도덕수양의 교육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조선의 지배집단은 충군애국의 봉건도덕을 강화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길준은 시대에 적합하고 보편적인 도덕을 재구성하여 제시함으로서 조선사회의 윤리와 기강을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유길준이 강조하는 도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전통적 인륜의 핵심이 되는 오륜을 자주 언급했었다. 그는 전통유학을 기본으로 하는 과거 준비 학문을 비판했었지만 여전히 오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오륜을 행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로 본다.⁵⁹⁾ 오륜의 행실을 지켜 사람의 도리를 알면 이는 행실이 개화된 것이고, 행실의 개화는 세계 만국을 통하여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⁶⁰⁾ 그리고 그는 서양 각국의 문물을 소개하면서 서양에도 오륜이 시행되는 것으로 말한다.⁶¹⁾ 이로 보건대 그의 '오륜'이란 인간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지는 인륜을 말하는 듯하고, 그는 오륜을 영원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유교의 핵심적 정신이라고 판단한 오륜은 유지하고자 이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의 '오륜'은 「노동야학독본」에서 제시한 사람 노릇 하는 여섯 가지 근본인 도리, 권리, 의무, 자격, 직업, 복록 중의 첫째 사항인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길준은 사람의 도리를 가족의 윤리인 부자자효, 부부화순, 형제우애와 국가의 윤리인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도리, 사회의 윤리인 인간 사이의 신뢰로 설명하였다.⁶²⁾

이 사람의 도리를 보면 유길준은 오륜을 새롭게 재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 윤리의 경우, 부자자효에서는 부자유친을 아버지의 도리와 자식의 도리로 구체화하였고, 부부화순에서는 부부유별을 화순으로 변형하여 남녀차별의 어감을 삭제하였으며, 형제우애에서는 수직적 개념인 장유를 좀 더 수평적 개념인 형제로 바꾸고 질서를 우애로 바꿨다. 국가 윤리의 경우에는 군신유의에 임금으로

58) 신순철, 「애국계몽운동기의 유교개혁사상·운동」, 《한국종교》 8집, 1983.

59) 『서유견문』, 304쪽.

60) 위의 책, 398쪽.

61) 위의 책, 395-396, 476쪽.

62) 유길준, 「노동야학독본」, 앞의 책 II, 268-269쪽.

대표되는 나라에 대한 국민의 도리를 표시하고자 백성을 첨가하고 임금으로서 할 일 및 신하와 백성의 충성을 제시하였다. 원래의 오류에는 봉우유신이 있었으나, 유길준은 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로 확대하여 기존의 오류에 사회윤리적 성격을 첨가하였다. 이처럼 유길준은 전통적으로 가(家)와 국(國)의 개념에서 형성된 오류에 사회 개념을 첨가하고, 남녀차별의 요소를 제거하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도리를 제시하고, 좀 더 수평적 인간관계로 변모시키며, 사회 윤리를 보완함으로써 근대사회에 적합한 윤리를 구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개정된 오류를 사람의 도리로 제시하여 교육함으로써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유지시키는 가운데 조선의 개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도덕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기에 지식의 교육도 추구할 수 있다고 간주했던 것 같다.

유길준은 이미 『서유견문』에서도 도덕과 지식을 겸비하고 이용후생에 기여하는 지도자를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안했었다. 그런데 그는 만년에도 교육적 인간상으로 새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선비상을 제시하였었다. 그는 이상적 국민의 모델을 전통적 선비에서 찾되 전통적 선비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도덕과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이다.⁶³⁾ 유길준은 군자는 교양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관점에 입각한 특권층으로서의 선비가 아니라 도덕적 기반 위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근대적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 말기에 국가 자주권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영웅이나 신민상이 제시되었다.⁶⁴⁾ 지식인들은 국권회복을 주도할 새로운 인물을 그리며 국민이 우러러 볼 영웅이 나타나 국권회복과 민력양성을 주도해 줄 것을 기대하였었다.⁶⁵⁾ 그런데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다수의 근대적 영웅을 소영웅이라고도 하였다.⁶⁶⁾ 소영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도덕과 애국심 및 정치력, 경제력 등을 갖춘 지도자로서 학교에서 교육으로 형성 가능한 존재를 뜻하였다. 그래서 학교를 영웅을 배태하는 영웅의 제조장이라고도 하였다.⁶⁷⁾ 이처럼 국권회복을 주도할 탁월한 인물의 출현에 대한 기대는 점차 국민 전체가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관

63) 유길준, 「홍사단취지서」, 위의 책 II, 364쪽 참조.

64)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9, 75-76쪽.

65) 「영웅과 세계」,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4일자 논설; 「영웅과 세계(속)」,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5일자 논설.

66) 최석하, 「한국이 갈망하는 인물」, 《태극학보》 7호, 1907. 2, 14-17쪽; 최석하, 「한국부흥은 영웅숭배에 재함」, 《태극학보》 10호, 1907. 5, 15-17쪽.

67) 이승근, 「영웅 회장에 왜론반도문명」, 《대한학회월보》 7호, 1908. 9, 47-51쪽; 이승근, 「영웅 회장에 왜론반도문명」(속), 《대한학회월보》 8호, 1908. 10, 47-51쪽.

점으로 바뀌었다. 즉, 국권회복을 주도할 인물이 특수한 영웅에서 전문가형 인물로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유길준은 국민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여 국민 모두 새 시대의 선비가 될 것을 희망하였다. 그래서 보통교육으로 국민을 교육하기를 바라면서 지식과 도덕이 온 국민에게 보급되는 보통교육으로서의 국민교육을 주장하였다⁶⁸⁾. 보통교육으로 전 국민이 지식과 도덕을 두루 갖추고 새로운 선비로 태어날 때, 국가가 굳건한 기초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의 핵심적 활동은 교육운동이었다. 전국적으로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근대학교로서의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후반에는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의 학교는 교사, 학생, 시설, 교과서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과정의 통일, 교과서의 발간, 학교 운영과 지원을 위한 통합적 기구 설치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사립학교의 급증으로 교사가 부족하게 되자 교원 양성과 교과서의 간행이 추진되기도 하였다.⁶⁹⁾ 이를 주도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유길준이었다. 유길준은 학교교육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는 교육사업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홍사단을 창설하였다.⁷⁰⁾ 홍사단은 국민교육을 보급하는 역할로서 다섯 가지의 교육지원 사업 즉, 교과서 편찬, 교사 양성, 학교의 설립과 유지, 교사 초빙 및 교과서 지원, 의무교육 제도의 점진적 시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⁷¹⁾

V. 결론

국가의 보전과 민족의 유지라는 과제를 마주 했던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전통과 근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전개할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사상을 체계적으로 전개했던 유길준은 유교적 전통과 서구적 근대를 조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지식인이었다. 그는 조선의 전통적 토양에서 유학적 지식을 습득하며 성장하였으나 서양문물에 접하여 유가적 사유의 경계를 넘어 다종교적 사유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유에는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68) 유길준, 「홍사단취지서」, 앞의 책 II, 363-364쪽.

69) 심성보 역, 앞의 책, 346-353, 367쪽.

70) 유길준, 「홍사단취지서」, 앞의 책 II, 367쪽.

71) 위의 책 II, 366-367쪽.

도덕주의가 짙게 배어있다.

조선의 개화를 필생의 과제로 삼은 유길준은 미국유학 직전까지는 교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미국유학 이후 그의 삶은 국민의 교육을 통한 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갑오개혁기에는 국민교육체제의 수립에 노력했고 일본 망명에서 귀국한 이후 애국계몽운동기에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도덕의 수양과 지식의 계발을 병행하는 교육을 내세워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을 절충하려 했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개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개화기에는 과거제도의 폐지가 보여주듯이 유교와 교육이 분리되어 갔다. 신교육에서는 도덕적 측면을 고려하여 유교와 관련된 교과목이 있었으나 이는 유교를 가르치려는 것이기보다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서양에서는 근대로 나아가면서 덕육이 사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공교육에서는 지육에 비중을 두었으나, 개화기의 조선에서는 교육에서 지육과 덕육을 함께 추구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학교를 중심한 지식 교육이 중요시되어 갔다. 당시의 조선 사회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부국을 위한 실용중심의 국민교육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논리이기도 했고, 세계 자본주의 질서 체제로 나아가는 조선의 역사적 방향이기도 했다.

유길준이 개화파 인물들과 뜻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초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했던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적인 사유방식을 견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의 장점에 서양의 장점을 수용하려고 했던 그가 조선의 유교적 전통을 도덕주의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와 교육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는 그 자신이 유교적 사유에서 다종교적 사유로 나아가면서 근대사회에서는 종교가 개인 내면의 문제인 반면 교육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어가는 시대적 조류를 감지한 듯하다.

그는 종교를 선권악벌과 양심계발의 대도라고 파악했고, 스스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이념을 수용하였으면서도 조선사회의 윤리와 기강을 제고하고자 고심했다. 그 결과 유길준은 새롭게 실시되는 근대교육에서 도덕교육과 지식교육이 병행될 것을 구상했고, 교육적 인간상도 지덕을 겸비하고 이용후생에 기여하는 선비로 보았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 경쟁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길준은 한편으로는 도덕적 이상을 여전히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실용적 교육의 현실적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도덕교육과 근대적 지식교육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의 현대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교육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해결은 요원한 상태이다.

가치관 혼란의 측면에서 오늘의 상황은 개화기의 상황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개화기에 종교적 상황의 인식을 통해 교육적 실천의 방향을 모색했던 유길준의 사유방식은 종교적 지혜와 단절된 현대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대한학회월보》, 《시사신보》, 《태극학보》
- 김기석·유방란,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김충렬, 『중국철학산고』, 서울: 범학도서, 1979.
- 도널드 베이커, 김세윤 역, 『조선 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서울: 일조각, 1997.
-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9.
- 신순철, 「애국계몽운동기의 유교개혁사상·운동」, 《한국종교》 8집, 1983.
- 우용재, 『조선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유길준, 영문 편지.
- 유길준, 『유길준전서』 I-V, 서울: 일조각, 1996.
- 유길준, 허동현 편역, 『유길준논소선』, 서울: 일조각, 1987.
-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서울: 일조각, 1994.
- 윤건차, 심정보 역, 『한국 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서울: 청사, 1987.
- 이광린,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서울: 일조각, 1989.
- 이광린, 『유길준』, 서울: 동아일보사, 1992.
- 이재일, 「개화기 종교적 변화의 교육적 함의」, 《종교교육학연구》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제12권, 2001.
- 전복희, 『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1996.
- 정순우, 「개화기 서구 근대교육의 수용과정과 그 성격」, 《정신문화연구》 15권 4호, 1992.
- 정순우,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과 그 사적 전개과정」, 『한국의 교육과 윤리』 6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정용재, 『찰스 다윈 -인간 다윈과 다윈니즘-』, 서울: 민음사, 1998.
- 정용화,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 서울대학교 외교통과 박사학위논문, 1998.
- 최봉영, 「유교문화와 한국사회의 근대화」,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53집, 1998.

Yu Kil Jun's Religious Understandings and Educational Practices in the enlightening period

Lee, Jae-il

(Sun Moon University)

《 Abstract 》

Education reflects the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the day. The education of Korean enlightening period(1876-1910) reflects the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the day. There are so many studies on the education of the enlightening period in Korea. Those conclude as follows: The intellectuals did not debate sufficiently on Korean tradition and Western modernity because of national emergency. On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was absorbed in importing Western education.

Regarding this conclusion as an issue, I studies Yu Kil Jun's educational theory. In fact, Korea was in no condition to debate on Confucian tradition and Western modernity. Yet Yu Kil Jun who had considered systematically the enlightenment of Korea tried to harmonize Confucian tradition and Western modernity.

He was accustomed to thinking moralistically on the basis of Confucian tradition. In the enlightening period, the idea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were introduced in Korea. Confucianism and the formal education started to were separated. In that situation he tried to combine the traditional education and the modern education through carrying out the moralistic cultivation and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n this view he set up the educational image of ideal human being and was engaged in educational practices toward the enlightenment of Korea.

Key words: the enlightening period(1876-1910), Confucian tradition, Western modernity, Yu Kil Jun's educational theory, the moralistic cultivation.